

데스크 시각



박석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얼마 전 광주에서 처음으로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세계한글작가대회는 국내 외에서 1000여 명의 작가들과 시민, 그리고 문학 애호가들이 참여했다.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시지역위원회(이사장 박석천)가 진행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글, 화합을 노래하다'였다. 오늘의 세계 정세나 우리의 시대 상황에 비추볼 때 시의적절한 화두였다. 무엇보다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한글과 한국을 중심에 두고 제(諸) 문제를 사유하며 논의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다.

광주서 열린 세계한글작가대회

지난 2015년 가을 이 대회가 창설될 때만 해도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확신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조직위 측에서는 '제1회'라는 순서를 붙이는 데 망설였다. "이사진 박석천"이 진행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글, 화합을 노래하다'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세운 '광주한글학교'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금을 모아 소련에 한글학교를 세운 것은 그 자체로 '광주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명징한 증거였다. 고려인들에게 한글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제적

은펜칼럼



김진우 광주교육시민협력추진단장

비행기가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순항이라고 한다. 신기하게도 그 육중한 기체가 조는 듯 큰 미동 없이 하늘을 날다. 순항 앞뒤에는 이착륙이 있다. 비행기는 이착륙 과정의 11분이 매우 긴장된 순간이라고 한다. 조종사들은 11분 중에서 이륙의 3분에 온 신경을 쓰지만 착륙의 8분에 더 집중한다. 이륙은 떠남이요 정리이다. 착륙은 만남이고 시작이다.

인간의 손가락은 다섯 개이지만 유독 엄지손가락은 다른 네 손가락과 차별성이 있다. 움직이는 방향이나 위치가 다르다. 네 손가락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에 마주할 수 없지만 엄지손가락은 이들과 마주 보고 있기에 견고하게 잡을 수 있고, 정교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인류 진화를 촉진시켰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은 나머지 네 손가락과 마주하거나 만나서 사랑의 하트가 되고, 제주와 비난의 표현이 되며, 주먹이 되기 도 한다. 다섯 발가락은 모두 직립하고 걷는데 필요한 수평 관계이지만, 엄지손가락은 만남의 협업 관계이다.

기고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끈 동력이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요구되고 있다. 전력 반도체는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시스템에 맞게 배분, 제어와 변환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일명 파워반도체로 불린다. 메모리반도체가 인간의 뇌와 같은 기억장치라고 한다면 전력반도체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비교될 만큼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력반도체 시장은 고전압, 저저항, 고주파 및 고온에 작동할 수 있는 기존 전력반도체 소자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등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3.3kV 이상의 고전력 반도체는 주요 국가들이 무기 사용 우려를 이유로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수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전력반도체가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부품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가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됨을 발표하고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력반도체 국산화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전력반도체 관련 제조 및 연구개발 인프라

K-컬처의 근간은 우리 한글에 있다

한 희생이 그 토대가 됐다.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이전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그에 앞선 동학혁명과 의병활동 등이 모두 광주정신의 뿌리에 닿아 있다.

또한 국권침탈이라는 시대적 운명에 휘말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해야 했던 고려인들의 눈물겨운 삶도 일정 부분 광주 아픔, 광주정신과 연계돼 있다. 후자는 "무슨 말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올해 3·1절을 앞두고 고려인역사문화탐방단 일원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던 광주 광산구 늘푸른작은도서관 이순욱 관장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통화에서 "스탈린과 소련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고려인들을 버렸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분투했을 고려인들의 삶을 생각하자 눈물이 났다"고 감회를 얘기했다. 탐방단은 당시 고려일보, 고려극장 등을 둘러볼 기회도 가졌다. 온종일 고려극장 90주년을 기념(2021년 8월)하는 앙코르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K콘서트에서 때장을 하듯 '용해야' 노래를 우리말로 부르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탐방단 중에는 광주 월곡동 고려인문화관 '겉'의 기념학 관장도 포함돼 있었다. 김 관장은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고려인한글학교에서 25년간 현지 주민들과 후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주인공이다. 이에 앞서 1991년에는 광주일보 주도로 광주전남 단체장을 비롯해 기업인,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소련에 한글학교를 설립한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세운 '광주한글학교'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금을 모아 소련에 한글학교를 세운 것은 그 자체로 '광주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명징한 증거였다.

고려인들에게 한글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제적

명의 정신이자 가치였다. 나라를 빼앗긴 쓰라린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모국어는 '밥'이자 '생명'과도 같았다. 이역만리 동토의 땅에서 아리랑 노래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났다는 동포들의 이야기는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한글 '세계 화합' 씨앗 났으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문화는 변방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시각예술을 비롯해 공연예술이 주는 화려함과 엔터테인먼트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모바일로 대변되는 SNS는 일상의 삶을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영역에까지 침투했다. 활자문화가 설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문화의 본질이니 문화의 가치니 하는 말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책상물림들의 자기위안쯤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문화는, 아니 한글은 여전히 희망이며 미래다.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소멸되고 있지만 한글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6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68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과목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구열이 가장 높은 국가다.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만 60곳에 전공자도 2만5000명 이을 만큼 한글 열풍이 거세다.

이번 '한글, 화합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광주에서 열린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어느 해보다 뜻 깊은 것은 그런 까닭이다. K-컬처의 열풍이 K-문화으로 전이될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의 한글이, 우리의 문화인 인종과 이념 그리고 종교 등 다양한 경계를 넘어 세계 화합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일하겠다"

만남은 우연이기도 하고, 숙명이기도 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자신의 성공이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류는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행운이 깃들인 만남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행운의 만남이 작용해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배려하고 세상을 관대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세모를 앞두고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특이하고 잊지 못할 만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교육, 책임교육 등 7개 분야에 활동할 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단체, 마을활동가를 모집했다. 190여 명이 활동하겠다고 신청했다. 말 그대로 광주교육에 관심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건이나 제약 없이 참여한 것이다.

첫날 분과별로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대표를 선출하는데 중년의 시민 한 분이 열자리에 있는 학생을 보면서 "기성세대보다는 MZ세대 학생이 우리 책임교육 분과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추천하자 모두가 "그렇습니다"면서 동의했다. 부대표는 내로라하는 마을교육활동가가 선출되었다. 각본 없이 순식간에 진행된 광주다운 대표 탄생을 보였다. 추천한 분도 혁신적이지만 이의 없이 동의한 위원들이 더 놀라웠다. 이름을 공개하면 우리 지역에서 알만한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이 학생과는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15세 김평안(고려중학교 2학년) 대표이다.

나는 여러 가지가 궁금했다. 자발적으로 왔을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줬을까. 만약 스스로 참여했다면 그 적극성과 참여 열정이 대단한 것이며, 후시 부모나 학교에서 추천을 했다면 뛰어난 리더십이 있거나 출중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학교 근처에 붙어있는 모집 현수막을 보고 광주교육현지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청했다고 한다. 몇 차례 만남을 통해 학생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에는 동부초등학교학생회 의장을 맡았으며, 지금은 동부중학생의회 의장, 시교육청의 학생 인권위원, 학교 방송부 등 특별하고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 회이나 카카오톡 투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유일한 학생 신분의 위원으로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다. 365스터디룸과 밥 평한 화장실 조성, 진로진학과 신선행, 학교자치 강화 정책이 좋게 생각되고, 보급된 태블릿 PC는 보안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여 '교육용'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분과에 참여한 10여 명의 어른들은 이 어린 중학생 대표가 학교생활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 기능이 있는 광주교육현치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의 위촉장을 대표로 받은 최연소 학생, 그의 좌우명은 "내가 더 일하겠다"이다. 나는 이 만남을 계기로 김평안 위원을 결해서 지켜보고 지지하면서 오래 기억하고 싶다.

미래 먹거리 전력 반도체

는 경기·부산 등에 미미하게 존재하며 그나마 저전력 반도체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부터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등을 통해 부산에 대략 83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 규모와 성장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고전력·대전력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과 송배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이 연관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에너지를 만들고, 만들어 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보존 전송하고, 이를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전력반도체 기술은 필수 품목이 되었다. 전남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발생 전력을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반도체를 통해 효율적인 전력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입 의존형의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국내에서 핵심 소재, 부품, 소자 등 자립형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 지금부터 전력반도체 육성을 위한 전남만의 전략 방향을 준비할 시점이다. 국가 로드맵과 연계하고 전남의 차별화된 잠재력을 활용한 전남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철두 철미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먼저 전남의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전력반도체 연구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미국 MIT 등과 국제협력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 부산·경기·광주와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중앙

기적으로 전력반도체 전문기업 투자 유치, 소재부품 소규모 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확장할 수 있겠다.

나주시가 지난 2월 전력반도체 육성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전남형 반도체산업 육성을 목표로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다.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위원회' 운영은 차별화된 선제적 전략이다.

다음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반도체·에너지·전력·정보통신 관련 기금사업 참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도심합공교통(UAM)·드론 등 고형 우주항공산업,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첨단 의료복합단지,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 집적화 등 대형 국가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등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소재·소자·모듈 간 연계 구상도 함께 준비됐으면 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전에너지기술연구소 연구 역량을 활용한 전력반도체 국가 실증·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깊이 고려돼야 한다.

이처럼 시장 확장성이 충분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이 송배전망 및 스마트그리드, 전기자 및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및 통합서비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공정·소자·평가기술 가치사슬별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는 선도 지역이 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광주신세계 확장 부지 전격 변경이 남긴 것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사업이 전격적인 부지 변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업자인 광주신세계가 1년 가까이 추진해 온 사업 부지를 기존 이마트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유스퀘어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그룹은 그제 광주시청에서 신세계백화점을 이마트 부지에서 유스퀘어 문화관으로 이전해 터미널 일대용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초 광주신세계는 9000억 원을 들여 인근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에 현재보다 면적은 4배 늘린 프리미엄 백화점인 '아트 앤 컬처 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1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해오다 갑자기 부지를 변경한 것은 난항을 겪는 행정 절차와 주변 상권의 반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사업지 주변 차로 건축선 후퇴(셋백·Set Back) 등을 요구하자 사업 부지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기부채납이 과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시장 논리가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부지 변경 카드는 금호그룹 입장에서도 싫지 않은 제안이다. 버스터미널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이용객들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을 맞았다. 두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인데 전격적인 부지 변경 결정을 보면서 기업 투자는 흐르는 물과 같이 과도하게 독을 쌓을 경우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광주시는 3자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제대로 된 복합쇼핑몰 건립은 광주시민들의 숙원 기원이다. 부지 변경이 이뤄진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도록 해선 안된다. 두 기업과 광주시는 한데 힘을 모아 당초 광주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시급하다

정부가 국세 수입 감소로 내년도 지방재정교부세(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겹쳤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을 올해보다 8조 5000억 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파란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확충 등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강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초에 따른 부가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지사 또한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사업 축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교부세 세입이 전체 예산의

40~53%를 차지할 정도다. 지방교부세 예산이 줄게 되면 시·도민과 밀접한 현안사업이 당장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에 따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 국제 발행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이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나아가 지자체들은 2006년 이후 17년간 유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5% 추가 인상을 바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대책없이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無等鼓

김치의 역사가 불분명한 것처럼, '김장' 역시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부터 이른바 '뽕맛'이라고 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일을 돕는 문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 김치를 함께 담그던 것이 오늘날의 김장 문화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할 정도다.

그런데 요즘 김장의 중요성이 시들해지면서 김장을 다량의 김치를 담그는 행위나 그렇게 담근 김치를 일컫는 말 정도로

김장교실에 참가하는 정도다.

김장 문화

다행인 것은 김장을 하느니 사서 먹는다는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도 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올린 것은 김치가 아니라 김장이라는 것이다. 등재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청이 '김치와 김장 문화'가 등재됐다고 설레발을 떨었다가 유네스코로부터 주의를 들은 사례에서 보듯 인류가 주목한 것은 김치이기보다는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김장이라는 전통 문화인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김장은 연중 큰 행사였지만 요즘은 핵가족화와 식단의 서구화, 외식의 보편화로 한 가정에서 소비하는 김치의 양이 대폭 줄었고 도시화와 아파트 인구의 증가로 공동체 문화가 시들해지면서 조금 보기 힘들어졌다. 다만 지자체, 부녀회, 교회, 봉사단체 등이 취약 계층에게 나눠주기 위해 단체로 김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김치를 담글 줄 모르는 세대가 주부가 되면서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하기 위해 문화교육센터의

김장교실에 참가하는 정도다. 다행인 것은 김장을 하느니 사서 먹는다는 '김포족'이 늘고 있다 해도 아직은 가족이나 친지끼리 모여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치를 많이 담그는 게 번거롭고 뒤처리도 힘든 일인지라 김장하는 날에는 싱싱한 꿀을 준비하고 수육을 삶아 김치소와 곁들이 먹으며 정을 나누는 전통도 지켜오고 있다. 힘들고 번거로우 여성들의 불평이 있긴 하지만, 김장은 여전히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전통 문화이자 잔치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보림, 노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address, phone, and website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